

# Time Out

## Seoul

SEPTEMBER 2015 VOL.4

WWW.TIMEOUTSEOUL.KR

ISSN 2384-227X

FREE



추석맞이 추억 대방출

# 오래된 서울

'서울 이민자'를 위한 고향 맛집

떡하니 살아남은 떡집

일상으로 들어온 한복

## Museums and galleries

### 성곡미술관

**비비안 마이어: 내니의 비밀** 스스로를 '스파이'라고 지칭하며 몰래 찍은 20세기의 뉴욕과 시카고의 길거리를 볼 수 있는 사진 전시. ▶ 9월 20일까지.  
**게리 위노그랜드: 여성은 아름답다** 다리를 벌리고 벤치에 앉은 여자들을 부각한 사진으로 비난을 받은 위노그랜드. 하지만 숨어서 촬영한 적도 없으니 판단은 전시를 보러 온 여성들에게 맡기겠다. ▶ 9월 20일까지. sungkokmuseum.org, 종로구 경희궁길 42, 02-737-7650, 화-일 10:00-18:00, 1만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북한 프로젝트 <북한 프로젝트>**에는 평양 창광체육센터에서 파마 모자를 쓰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여자들의 사진도 있고, '집집마다 집짐승을 길러 닭알과 고기를 더 많이 내자!' 같은 문구가 인쇄된 북한 포스터도 있다. 그리고 가명으로 활동한 탈북 작가의 작품과 북한 정부가 추진한 선전형 유화가 한 전시장에서 비교된다. 북한 쪽에서 달갑게 받아들일 구성은 아니다. ▶ 9월 29일까지. sema.seoul.go.kr, 중구 덕수궁길 61, 02-2124-8800, 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매일 첫째, 셋째 화요일 10:00-22:00, 무료 입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황용업 인간의 길** 평양에서 태어나고 성장기를 보낸 작가는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당시 집단적인 활동을 하거나 전쟁의 참화를 직설적으로 그려낸 화단들과 달리, 황용업은 오로지 '인간'을 그려내는 데 몰두했다. 가녀린 핏줄처럼 뽀얀 나뭇가지 속 혈맥은 인간과 세모난 얼굴에 비해 유난히 크고 투명한 눈망울은 작가가 살아온 환경에 관심 없어도 소름이 끼친다. 한마디로 불편하다. ▶ 10월 11일까지. mmca.go.kr,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02-2188-6000, 화-금, 일 10:00-18:00, 토 10:00-21:00, 2000원, 매일 마지막 수요일, 토 17:00-21:00 무료 입장

### 더 페이지 갤러리

**평면조건: 몸을 드리다** 피카소의 '푸른 방(The Blue Room)' 속에 머리를 틀어 묶은 여성은 원래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였다고 밝혀졌지만, 흰 물감으로



##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 국제갤러리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10년까지만 해도 뉴욕 뉴뮤지엄 건물 외벽에는 무지개 모양의 간판이 있었다. 긍정의 에너지를 마구 내뿜던 간판에 적힌 메시지는 'HELL, YES!'. 우리말로 '야 당연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상하이 록랜드 미술관의 옥상에도 동일한 무지개 디자인의 간판이 설치됐고, 그 위에는 전시의 제목인 <BREATHE WALK DIE(숨 쉬고 걷고 죽어라)>가

네온 불빛을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스위스 작가의 개인전에는 형광색 옷을 입은 40명의 광대 퍼포머들이 미술관 바닥에 주저앉아,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 국제 갤러리에든 시무룩한 표정의 광대들이 출몰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어도 국제 갤러리를 위한 간판 하나 정도는 새로 만들어줄 것 같다. 한국 사람이 봐도 웃을 수 있는, 간단명료한 영어 간판이기를 희망해보지만 지금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두툽게 쌓아 올린 '평면조건'은 처음에 검은색으로 시작했다.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검정을 지워가는 작업을 40년간 묵묵히 해온 최명영의 유일한 화두는 단색화. 한 색깔로 칠한 대적이 주는 강렬함에 압도되거나, 비슷한 기법으로 '평면'만 연구해온 작가의 독심에 질리거나. ▶ 9월 20일까지. the page-gallery.com, 성동구 왕십리로 85 지하 2층, 02-3447-0049, 화-일 10:30-18:00, 무료 입장

### 오페라 갤러리

**무한공간 속의 환영** 반복적인 선 굵기 기법 하나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윤상렬. 고무판을 종이로 훑어 '없는 공간'을 표현한 김인경. 아기들이 환장할 모빌처럼 자그마한 아크릴 조각을 천장에 매단 박선기. 겹겹이 쌓은 방탄유리에 소나무를 그리고, 그 뒤에 비디오를 쏘는 손봉채.

네 명 모두 해외에서 이름을 여러 번 날린 실력파 국내 작가들이다. 최첨단 기술 하나 없이도 신비로운 풍경에서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밝혀진다. 일차원적이지만 신비로운 '불거리' 위주의 전시라는 소리. ▶ 9월 13일까지. operagallery.com, 강남구 도산대로 318, 02-3446-0070, 10:00-19:00, 무료 입장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비밀의 왕국** 그림형제의 동화처럼 섬뜩하지는 않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눈썹에, 얼굴은 못생기고 짜리몽땅한 '인어공주'가 똥하게 포즈를 취하는 어린이 전시. 브로콜리 나무로 우거진 이슬기의 '또 다른 자연'은 일반 동화보다 미화된 세계를 제시하고, 금발의 동양 모델 두 명이 <헨젤과 그레텔>로 등장하는 사진은 함께 온 엄마 아빠의 취향을 겨냥한다.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바라보며 어린이

몽상가들에게는 유익한 교육 전시. 동화를 곧 성서처럼 믿는 아이들의 동심은 집에서 지켜주기를. ▶ 12월 13일까지. sema.seoul.go.kr, 노원구 동일로 1238, 02-2124-8800, 월-금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무료 입장

### 송은 아트스페이스

#### Summer Love: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 2부

매년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은 이번 8월에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 앞서 잠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작가 32명의 미발표 작품과 신작이 함께 전시되는 것. 2부에 전시되는 8명의 아트큐브 작가 중에는 영국 곳곳의 식당(맥도날드도 포함이다)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김대웅의 사진 시리즈가 돋보인다. ▶ 9월 19일까지. songeunartspace.org, 강남구 압구정로75길 6, 02-3448-0100, 월-토 11:00-19:00, 무료 입장

### 국제갤러리

**하종현 개인전** 천 사이사이의 틈으로 물감이 흘러나오도록 마대 뒷면에서 안료를 힘껏 밀어 넣고, 한국전쟁 이후 미군 군량미를 담던 포대자루를 회화의 재료로 사용한 하종현.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과 아픔을 되씹어서 소화시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 하종현의 최근 작품은 마포 천 위에 유채로 새로운 선과 색깔을 구사한다. 개인적으로 패널을 철조망으로 엮은 '작품 73' 같은 역동적인 작업이 그림이지만, '이후접합'은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재료로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 충실한 21세기 작품이다. ▶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kukje.org, 종로구 삼청로 54, 02-735-8449, 월-토 10:00-18:00, 일·공휴일 10:00-17:00, 무료 입장

### 세움 아트 스페이스

**허보리 개인전** 천으로 만든 클래스 올덴버그의 부드러운 케이크는 실제 사이즈를 과감하게 확대한 크기만큼이나 천 조각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감과 명성을 지켜왔다. 허보리 또한 천으로 작업을 하지만,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해 보기와 다르게 단단한 표면을 지닌 올덴버그의 작업과 목적이 다르다. '쓸모 없지만 필요한(Useless But Necessary)' 무기를 선보인다. ▶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seumartspace.com, 종로구 삼청로 48, 02-733-1943, 화-일 10:30-18:00, 무료 입장